

사순절 사경회 소감문

성명	대학지구	캠퍼스	10캠퍼스
소속 목장	올리브	담당교역자	한상준 전도사님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기독교 대안학교를 졸업하며, 성인이 되기 전까지 한 번도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해 본 적 없이 평범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만남이나 실제적인 임재를 경험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은 그저 '계시는 분'이었을 뿐, '나의 하나님'으로 깊이 만난 적은 없었습니다.

21살이 되어 대학과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기도의 시간은 점차 줄어들었고, 주일 예배는 어느덧 습관적인 참석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는 나갔지만 기도하지 않았고, 모든 것을 내 힘과 노력으로 해결하려 애쓰며 살았습니다. 군 생활 중 힘들 때만 잠시 하나님을 찾고, 다시 적응하면 기도를 멈추는 철저한 '기복 신앙인'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주일 성수를 거르지 않았던 것은 신앙의 고백이라기보다 일종의 강박에 가까웠습니다. 전역 후 1년 동안은 교회에 다녀야 하는 이유조차 잊은 채,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을 것만 같은 교만한 마음으로 지냈습니다.

하지만 지난 겨울 방학, 현실적인 문제와 인간관계의 갈등이 겹치며 감당하기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는 무력감을 뼈저리게 느꼈을 때, 비로소 저는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현실의 상황이 당장 극적으로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제 삶의 중심이 되셔야 하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고, 여전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죄와 싸우며 하나님만을 구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간절함을 안고 시작한 제자훈련은 제 신앙의 터닝포인트가 되었습니다. 훈련 과정을 마친 지금, 저는 제가 앞으로 왜 하나님을 더 온전히 믿고 의지해야 하는지 그 분명한 이유를 찾았습니다. 특히 내 생각과 의지만으로 발버둥 치던 삶에서 벗어나, 제 안에서 늘 동행하시며 도우시는 성령님의 존재를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내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알게 되니, 매일의 삶을 살아갈 큰 위로와 힘을 얻었습니다.

이제 저는 '습관적인 교인'이 아닌, 성령님과 매순간 소통하는 참된 제자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제자훈련은 끝났지만, 배운 말씀과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늘 제 중심을 하나님께 두며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해나갈 것을 결단합니다. 제 삶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